

20 호기 (JA820P) 간사이공항에 도착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이노우에 신이치)는 오늘 Airbus로부터 받은 20호기(기종: Airbus A320-200, 기체번호:JA820P)가 간사이공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간사이공항에 도착한 20호기(12월 8일 촬영)

Peach의 20호기는, 12월 5일(현지날짜) Airbus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국제공항과 타이 우타파오 국제공항을 거쳐, 오늘 14시 42분에 Peach의 거점인 간사이공항에 도착했다.

Peach 대표이사 CEO인 이노우에 신이치는, “드디어 20대 기체를 도입하게 되어, 더욱더 비약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Peach는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기축으로 하여 더욱 높은 오퍼레이션 품질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에서 가치 창조를 테마로 하여, 항공사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체험가치를 높이고, 일본과 아시아의 하늘을 이끌어 올리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라고 전했다.

또한, 20호기는 12월 21일부터 MM231편(간사이-이시가키선)으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Peach는 2018년도 내에 A320ceo를 다시 3대를 받고, 2019년도 이후에는 A320neo(new engine option)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도 중에는 30대 이상의 기체로 운항할 될 예정이다.

Peach는 향후에도 일본과 아시아의 가교로서, 활발한 노선 전개를 꾀할 것이다.

Peach 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 는, 2012 년 3 월에 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 년 7 월에는 나하공항, 2017 년 9 월에는 센다이공항을, 간사이공항을 잇는 거점공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4 개 노선, 국제선 14 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1 일 기준 최대 약 100 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였습니다. 2018 년도에는 신치토세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할 예정입니다.